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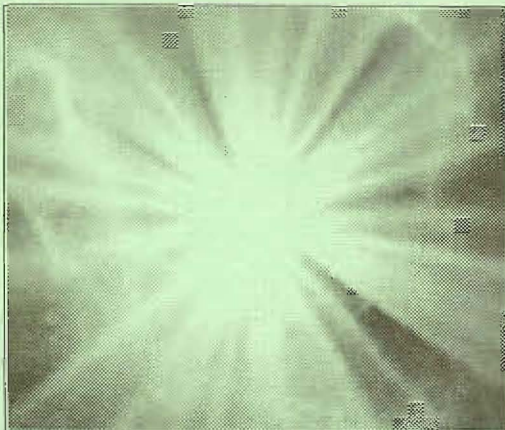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5주일
제34권 11호(가해) 2014.2.9

[묵상]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소금은 맛을 낸다.
음식에 맛이 없다면 그것은 쓰레기다.

인생에도 맛이 있어야 한다.
즉 기쁨이 있어야 한다.
세상사는 것이 전혀 기쁨이 없고 살맛이 없다면 큰일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주고,
삶의 기쁨을 주어야 한다.
내가 있으므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살맛이 나는가?

오히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은 불편한 인간이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소금역할을 못하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소금은 음식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다.
음식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자취를 감출 때만
참으로 소금의 맛이 난다.
소금의 모습을 지닌 채 딱딱하게 남아 있는 한
역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쓰레기다.

사랑과 나눔,
인내와 용서로써
자기 자신을 상대방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해야하는 것이다.
내 주장만을 내 세우며 언제나 뻣뻣하게 버티고 서 있으면
나는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동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차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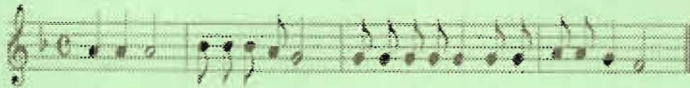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김인영 베드로
특전미사	(생)이용운, 김지수 보나 & 김지에 크리스티나, 김석기 스테파노 & 박지영 레지나 가정
주 일	(연)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전시웅 요한, 이용식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주재원 시메온, 윤재림 마리아, 김용팔 다두, 송기인 요셉 & 김재순 아가다, 주용범 아브라함
낮 미사	(생)정애나 새라피나 & 정린다 겐마 & 정엘리스 클라라, 지재환 프란치스코 드 살 & 김린다 안나 & 지수현, 김기준 안젤라, 최운정 레지나 가정, 김창옥 마리아 & 민기남 모니카 & 이귀애 데레사, 이태옥 아가다 & 박영희 아가다,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8,7-10

화답송 ㉠울퉁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울퉁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울퉁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뽕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2,1-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5,13-16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77	184	241
봉헌	303	261	255
성체	Word of God Speak	282	287
파견	364	240	240

올바른 성모신심

제4장 잘못된 성모 공경

(2)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빛나간 성모 신심들

가. 상주의 사적 계시를 중심으로 한 성모 신심
교황청 신앙교리성 공문(1995년)에서도 “그의 묵시로 시작된 수도회가 교황청 인정을 받았다 해서 그 묵시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책들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고생을 하며 살다가 입교하게 되면서 체험하게 된 묵시, 발현, 예언, 기적적 사건 등을 기록한 자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가 체험한 천당, 지옥, 연옥의 모습들은 과거에 가르쳤던 교리서들의 설명과 다르지 않다. 예컨대 지옥은 불타고 있고, 뿔 달린 마귀들이 삼지창을 들고 괴롭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성모 발현의 경우 파티마와 루르드 성모 발현을 상당히 모방하고 있다. 이는 당시 지도 신부로부터 교리 공부, 강론, 영적 상담에서 얻은 지식으로 충분히 구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사실 하느님께서 그 누구와도 만나실 수 있고, 그들에게 계시를 내리실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의 별개의 문제이다. 일찍이 하느님을 체험한 토마스 데아퀴노는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 “내가 이제껏 하느님께 관하여 설명한 것은 내가 체험한 하느님에 비하면 지푸라기와도 같다.”고 일축하였다. 그 누구보다도 신비 체험을 많이 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카르멜의 한 수녀가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참된 영에서 온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로 지적하였다.

첫째, 소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내적으로 미혹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남에게 밀도록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제한다. 넷째, 가장 중요한 점으로 기도의 방법에 겸손이 필요하다. 다섯째, 참된 영은 잘난 체하거나 과장이 없는, 소박한 문체로 가르치므로 그의 글에 소박함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와 그 관계와 의미가 명확하게 주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적 계시도 공적 계시를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공적 계시와 어긋나는 사적 계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기준에 맞는 사적 계시라 할지라도 지역과 시기의 한계를 지닌다. 또한 교회의 공적 가르침과 부합되어야 한다.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진리나 도덕성에 상반된다면 잘못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사적 계시를 받는 자가 균형 잡힌 인격체인지 아니면 병리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지 조사되어야 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주요한 세 가지 적성은 참된 겸손, 자신의 관심거리만을 찾지 않는 순종, 시련과 모험에도 강한 영적 능력의 소유를 들 수 있다. 주체 자신이나 그 주변 인물들에게서 드러나는 영적 결실들로서 기쁨, 평화, 사랑, 거룩함 등이 기준될 수 있다. <◆계속>

사랑을 위한 소모품

깊은 산이나 망망대해에서 별빛은 생명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도시의 밤은 화려한 네온사인 때문에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빛은 하느님의 빛이고 네온사인 불빛은 인간 욕망의 불빛입니다. 인생의 참다운 길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느님의 빛이 간절합니다. 온갖 화려한 음식들이 각기 제맛을 자랑하고 있는 산해진미의 식탁에선한 줌 소금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달고 맵고 신 것 모두를 포기하더라도 짠 것을 포기하면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 몸에 염분이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소금으로 생존하고, 빛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로써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은 자기가 없어져야 비로소 그 효능을 발휘하는 것들입니다. 빛을 내려면 제 몸이 타 없어져야 하고, 소금이 맛을 내려면 스스로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없어지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것이 없어지지 않은 착한 행실이란 말뿐인 거짓이며, 희생 없는 공치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착한 행실을 하려면 우리의 시간과 돈이 없어지고, 마음은 상처 입은지 모르며, 이름도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이사 58, 7-8)

우리 인생은 어느 때까지는 모으는 과정이겠지만, 그 이후는 없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가지는(Take) 인생이 주는(Give, 寄附) 인생으로, 이기는 인생이 지는 인생으로, 내 능력에 바탕을 두었던 인생이 하느님 능력이 발휘되도록 나를 치우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진정 착한 행실을 실천하는 인생, 하느님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고생하여 돈을 벌고 명예를 얻은 후 그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녹여 짠맛을 내고, 그것을 태워 빛을 내야 합니다. 창고에 넣어둔 소금과 합지 속에 넣어둔 등불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착한 행실을 위해 내것을 녹이고 내 이름을 태워 없앨 때, 하느님 사랑의 맛이 나고, 사랑의 하느님 이름이 빛납니다.

우리의 생명, 시간, 삶은 모두 사랑을 위한 소모품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소모품입니다. 오래 보존하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 내에 잘 써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 내 마음을 다 녹이고 내 몸을 완전히 연소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사랑하기 위해 죽으면, 죽을 때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찬근 신부 /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주임

☺ 서로 웃으면서 인사 합시다. ☺

이번주 전례봉사회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별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신덕례 데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 ◆ 성가 반주자를 찾습니다.
- 미사에 봉사하실 성가 반주자를 찾습니다.
 - 문의 : 오마우라 수녀

2월11일(화)은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 백삼위 서예반에 초대합니다.

- 일시: 대월 둘째주일 낮미사후- 서예
대월 넷째주일 낮미사후- 사군자
- 장소: 2층 유아실
- 문의: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기도의 언덕'을 이용합시다.

-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지향을 적어서 성체 조배실에 비치된 '기도의 언덕'함에 넣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성령기도회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 문의 : 본당 성령기도회 ☎(310)780-0369

◆ **안나회에서** 오늘 전신자들에게 **친교점심** 대접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9일) 낮미사후 천교장
- 메뉴 : 우거지 콩나물국밥
- 2월모임 : 오늘주일(9일) 낮미사후 오후 1시 *장소 : 강당
- 문의 : 한춘선 투시아 안나회장 ☎(310)787-4387

◆ 개인초 봉헌하신분들 찾아가세요.

주님 봉헌 축일에 개인초를 봉헌하신 분들은 성물부 또는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탁달레나 ☎(310)539-3377

◆ 주일아침미사 성인 복사 모집

- 미사시간 : 주일아침 7시30분
● 문의 : 김성현 유스티노 전례분과장 ☎(310)347-1665

◆ 주일학교 학생 봉사단 모집

- 대상 : 첫영성체를 한 주일학교 등록학생이면서 부모님이
열심한 신자인 학생
- 첫모임 : 2월22일(토) 오후 2시
- 문의 : 신동윤 빈첸시오 복사담당 교사 ☎(310)744-5878
- 입단식 : 6개월 교육기간이 끝나면 8월중 낮미사
(오전11시)중 에 입단식 거행(날짜 추후 통보)

◆ 사우스메이 러닝팀 회원모집 안내

- 장소 : 엘 레티로 팍(128 Vista Del Parque Av.
Redondo Beach, CA 90277)
- 집합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건강을 위해서 걷는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 주님탄생예고 대축일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세미나

- 일시 : 2월13,14일(목,금 오후7시-10시)~15일(토 오후5시-9시)
- 장소 : LA 성바실 한인천주교회 본당지하
- 대상 : 전신자 * 준비물 : 목주, 성가책
- 강사 : 한양회 카타리나 수녀(의정부지부)
- 미사 : 박대덕 스테파노 지도신부
- 주관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미주평의회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9일(주일) : 안나회(우거지콩나물국밥 \$0)
* 주일학교(6학년 김밥)
- 2월16일(주일) : 하버카슨 1,2반(비빔밥 \$3)
* 주일학교 : 수업없음(마틴루터킹Jr.기념일 연휴)

그러나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권오상	김광자	김광호	김상규	김상근	구자운	권오상	김광자	김선계	김양금	김	옥
	김선제	김성현	김양금	김영경	김옥찬	김	옥	김주량	남명자	노세미	노천수	박광자	박
	김정웅	김종렬	김주량	남명자	노세미	노천수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박종민	서재원	성낙호	박
	박광자	박씨니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박종민	양영관	엄세종	엄정자	유선식	윤화경	이근모	씨
	방정복	서재원	성낙호	손춘화	송영미	양영관	이미경	이상석	이영희	장영우	전동훈	정열모	니
	엄세종	엄정자	오신재	오일순	유선식	윤화경	정지숙	정훈모	주대중	주용순	지경수	최태훈	호
	이근모	이상석	이영희	이인두	이재용	이태옥	한창주	한길선례	영희가보라	송마이클			모
	익	명	장영우	전동훈	전정일	정명모							정
	정지숙	정훈모	주대중	주용순	지경수	최태훈							열
	한창주	한길선례	최트로이	영희가보라									모
송마이클						합계 : \$6,830							
주일미사 현금 : \$2,821						2차현금 : \$1,044							
감사현금 : 서예반						달력/주보 광고후원 : \$2,200(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기간 : 2월1일~4월13일(주일)까지
- 제목 : 루카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20일)

◆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

- 일시 : 2월14일(금)~16일(주일)
- 장소 : 빅베어 레이크

◆ 프레지던츠 데이연휴...16일 9:30am 미사 한국어로 진행

◆ 주일학교 중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3월21일(금)~23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
39364 Oak Glen Rd. Yucaipa, CA 92399
- 대상 : 7학년~8학년 * 참가비 : \$60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채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 남스텔라 중등부 교무주임 ☎(310)918-3324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참가비 : \$200(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디스카운트 혜택 : 오늘주일(2월9일)까지 접수하면
10% 절약 \$180
- 신청마감 : 2월23일까지 선착순 30명제한(no refund!)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그룹리더 ☎(310)709-3343

◆ 한국학교 SAT반 학생모집

- 대상 : 현재 8학년이상/11월1일 시험을 볼 예정인 학생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 교장 ☎(310)464-7490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LA아그네스 성당 제19기 커피 교육

- 일시 : 2월10일(월) 오후 1시~오후 5시
13일(목) 오후 6시30분~10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 지도 :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수강료 : \$200(첫강의후 10회 실습)
- 문의 : 성당 사무실 ☎(323)731-4433

◆ 작은 예수회 LA본원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을'

- 공소예절 : 2월15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Soma Club협연)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점심나누기 : 낮 12시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테레사 수녀

소공동체 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번	한글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탁달레나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2/16(주일) 오전 8시 온천피정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2/8(토) 오후 6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2/14(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주량 요한 782-8549 2/15(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2/8(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박진숙 로사 592-6712 2/14(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최경숙 수산나 753-6959 2/21(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2/11(화) 오전 11시 성당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송호창 요셉 213-550-6653 2/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오세원 아타나시오 569-0482 2/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주첼마 530-3470 2/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2/15(토) 팜스프링스 온천피정
	2	금유미 크리스티나 482-9108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2/14(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성미선 리디아 944-4577 2/15(토) 오후 5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선민 마리아 427-1927 2/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재단체 모임의 날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2014년 세계병자의 날 담화문(요약)

믿음과 사랑 :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1요한 3,16)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22차 세계 병자의 날(2월11일)을 맞아 저는 특별히 병자들과 그들을 돕고 보살피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올해 세계병자의 날의 주제는 “믿음과 사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1요한 3,16)”입니다.

우리의 고통 안에 그리스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고통의 외로움을 물리치시고 그 어둠을 밝혀 주시며,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질병과 고통을 몸소 짊어지심으로써 질병과 고통이 더 이상 최종 선고가 아니기에 풍요로운 새 삶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고통은 변화되어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힘입어, 우리는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한 착한 사마리아인이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1요한 3,16)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들에게 하느님의 미소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존중하는 자상한 사랑과 자애를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 어머니이신 마리아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당신 자녀들의 필요와 어려움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와 고통받는 이들의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아래에 성모님과 함께 서있던 제자, 요한 성인은 우리를 “사랑이신”(1요한 4,8,16) 하느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인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 제22차 세계 병자의 날, 병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을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모든 병자 여러분과 그들을 돌보는 보건의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교황 강복을 보내 드립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 전례주년이란 무엇인가요?

교회 고유의 주기를 1년 단위로 표시한 것을 ‘전례주년’이라 합니다. “교회는 1년의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 즉 강생에서 시작해서 성령 강림날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기념한다.”(전례헌장 102항) 전례주년의 구조 안에서 한 해의 큰 축을 이루는 것은 파스카(부활) 축일과 성탄 축일이기에, 이 두 축일을 중심으로 전례주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례주년은 대림시기, 성탄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 연중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 성인들의 축일이 들어 있습니다.

◆정의철 신부/생활성서(뜻을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상처를 키우다

상처받은 것에 몰두하느라
사랑받고 있는 거 잊은 건 않은지.
상처 준 사람 원망하느라
사랑하는 사람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작 진물 나는 거 보느라
따뜻한 눈빛 놓쳐야 하는지.
환한 웃음 뒤에 두고
고름 차오르는 것만 봐야만 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영 아녜스 / 수필가